

자비를 원하시는 왕

마태복음 9 장 1-13 절

요절 9: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수양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나라에는 왕이 있고 그 왕의 특성과 본질은 그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의 나라에 초청하셨고;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이 왕은 남들과 달리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이 왕은 남들과 달리 파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왕은 자비를 원하고 죄인들을 부릅니다.

I. 안심하라

1-2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한 더 많은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부수고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내려 보냈습니다. 좀더 드라마틱하지만 마태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이야기의 핵심 부분만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람들의 인상적인 신앙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중풍병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

이였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중풍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 그의 상태가 매우 안좋은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함을 배웁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냐면, 믿음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은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인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 처럼,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중풍병 뿐만 아니라, 그는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과, 두려움, 운명주의, 불안에 고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에서 고통을 보셨고, 그에 대해 무언가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솔직히, 오늘날의 사회에서 많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무시당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스티브 크립 (Steve Cribb)이라는 장애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목 아래 전체가 마비되어서, 제가 그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밀고 있는 저와 얘기하려고 한 반면 스티브는 완전히 무시하거나 동정하듯 함부로 말하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브가 매우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2 절 하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아들아, 기운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안심하고 기운을 내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공하는데, 커리어를 쌓는데 마음을 쏟고, 가족이나 시험 결과 같은 것에 마음을 둡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대 받는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는 여전히 마비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중풍병이 치료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기운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았으며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약속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지 이상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찰스 스펔전은 만약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불길 속에서 빠져 나올 때 한 아이가 아직 안에 있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물어 봅니다. 그 한 아이가 불타는 집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부모를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 사람이 '우리가 당신의 서랍장을 구했고, 우리는 당신의 소중한 책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iPad 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에 빠져있는 것만이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위험에 빠져있을 때 아무것도 그를 만족 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왕과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용서가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 감금된 죄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맛있는 식사가 그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더 안락한 침대나 더 좋은 가구가 그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의 앞에는 유죄 선고가 있고, 그는 내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면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는 진심으로 안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주위에 있는 음식과 다른 좋은 것들을 정말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직 감옥에서 나갈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안심하라고 당부하시지만 그의 속 마음을 아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로 인해 부담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아들을 보셨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관찮은 아들들이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오직 저만이 그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 그의 고통, 혼란과 중풍병을 보시고 그를 아들 -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아들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중요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단절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가장 깊은 필요를 보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써 섬세하게 그를 환영해 주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II. 왕의 도전

죄사함은 놀라운 선포 이지만 예수님께서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욱 엄청난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의도적으로 도전하십니다. 이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번째 충격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였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서서 데려왔지만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번째의 충격은 율법학자들에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는지라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왕만이 사면을 해주고 왕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말은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실 때 그곳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나를 향한 것이다.” 너희가 거짓말하면, 그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상하게하면, 그것은 내 피조물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그는 왕이 여기있고 그 능력을 쓰고 계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혀 부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지칭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4)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나에 대하여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너희의

생각이 악하며, 너희의 마음이 악한지도 안다.’ 명백하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당신에 대한 견해에 불만족하시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6-7 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병고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이 예수가 누구인가?” 자문하도록 도전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6)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만날 날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저희 각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또한 저희를 지금 당장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하메드, 크리슈나, 부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르쳐서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날 당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특별합니다. 그는 죄를 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위대하신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예언자도 아닙니다. 이 중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며,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왕이 되심을 저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III. 왕의 부르심

예수님께서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지만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마태는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주된 관심을 자신의 이야기로 돌립니다. 첫째,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9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들은 로마에 협력함으로 미움 받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마태는 그가 세리가 되기 위한 선택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일이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사람들로 부터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에는 손대기 싫은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즉 누구도 친하게 지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오늘 날에 비교하면 이는 예수님께서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가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시받고 배척받고 미움받는 자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바라시며 그의 나라가 더 나아가 가장 낮고 추한 매국노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가장 나쁜 죄인들에게 까지 열려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심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규칙들을 따르라. 이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부름은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께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어 나에게서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르심은 충격은 상당하여 마태는 이에 압도되어서 세관을 떠났고 파티를 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손님들 명단을 10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는 대단한 손님 명단이군요! 이는 대단한 파티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11) 바리새인들은 손님 명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기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바리새인들을 가짜,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친숙하여 ‘이 사람들은 역겨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그들과 다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경공부로 인해 스스로에게 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을 법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설자들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저와 아주 닮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는 12-13 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많은 죄와 혼란이 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손님들을 보시고 ‘그들은 분명히 죄인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죄를 변명하거나 축소하지 않으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나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룰 시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시지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는 것은 가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랍비식의 꾸지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요점을 놓쳤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왕의 법은 알았지만 왕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율법은 제사가 필수입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 돈, 노력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완전한 제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죄인들, 약자들 그리고 문제있는 자들을 향한 상한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보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온정이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자들에 대한 경고. 예수님의 나라는 가장 더러운 죄인들을 포용할 만큼 충분히 넓지만, 건강한 자들은 왕과 그의 나라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그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나쁜 점은? 그것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의 진짜 걱정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 입니까? 이는 죄로 인한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최근에 암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를 더 괴롭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아버지께서 몇 년 동안 암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를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는 건강해 보였고 활동적이었지만 진실은 이 병이 시종일관 그를 죽이고자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은 심각한 병이지만 죄의 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허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이 메시지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친절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쉽지요. 문제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공허히 여김을 받음으로서입니다. 마태의 심정은 예수님의 공허히 여기심을 받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마태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조금의 공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정죄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마태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배척하기보다 그를 보듬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공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또는 죄로 인한 혼란, 혼동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허와 포용의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종교적인 의미들 만을 얘기한 것을 깨달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장소에 서 있다는 것은 항상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 가거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분명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할 때 쓰는 말이고 기독교인들은 조롱의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 대 후반일 때 노르웨이에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신년 캠프에 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3 페이지나 읽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가롯 유다의 분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롯 유다와 동의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일년치 임금을 바닥에 붓는 것은 낭비입니다! 저는 가롯 유다가 나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저를 놀라게 했고 성경공부 초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방에 홀로 있으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가 믿는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십니다.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믿도록 저를 옳아 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어릴 때 부모님의 돈 아마도 지금 가치로 500 만원 정도를 훔친 것을 상기했습니다. 돈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비난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진실을 결코 알지 못하셨고 저는 수십년 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롯 유다와 같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뒤집어 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이때 저는 예레미야서 31 장 3 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배신, 폭력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인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고 나누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판단하는 마음과 파티 손님들 명단에 대해 비난하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폴, 내가 긍휼을 원하노라. 네가 긍휼을 받았듯이 나는 긍휼을 원하노라.” 제가 예수님께서서 제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장소로 보입니다.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그 예수님 안에는
용서와 긍휼이 있습니다.

* Watch Video Message

<http://hiskingdom2018.org/about-us-basic/accordions-2-2/speakers/>